

Stage in the **FOREST**

숲속 무대

구희진 지음

Nature Essay

Seodaemun-gu

Stage in the **FOREST**

숲속 무대

구희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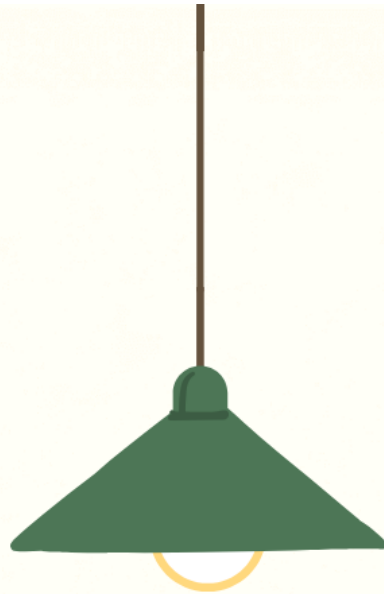
Forest

Sun

Tree is God

Carpe Diem





자연을 사랑하는

구희진작가

숲을 걷고,
초록색 나무를 그리고,
시간의 세례를 받은 책을 읽는 사람.
초록빛 안에서 사랑이라는 심표를 찾고,
글과 그림으로 작은 마법을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구희진 〈포레스트〉

포레스트

숲을 걸으면 초록 내음이 은은히 스며든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풀잎은 더 짙은 향을 내뿜고, 그 향기는 어느새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게 된다. 숲은 눈으로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온몸으로 마시는 세계라는 것을. 귀로는 바람의 노래를 듣고, 손끝으로는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지며, 발바닥으로는 흙의 결을 느낀다. 숲 속의 공기는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하다. 그 온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나는 계절의 숨결을 듣는다. 나무는 오래 살아온 흔적을 숨기지 않는다. 세월의 주름은 나이 든 이의 얼굴처럼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갈라진 껍질, 비틀린 가지, 세찬 바람에 꺾였다가 다시 이어 붙은 흔적까지도 나무의 역사다. 그러나 그 자국들은 결코 상처로만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더 단단한 증거가 되어, “나는 살아왔다”라는 선언처럼 우뚝 서 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고, 부러지면서도 다시 뻗어 나갔다. 그것이 나무의 삶이고, 동시에 숲의 언어다. 고단한 세월의 흔적은 인간에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 애쓴다. 주름을 지우고, 흉터를 숨기며, 때로는 과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나무는 달랐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껴안으며 더욱 깊은 뿌리를 내렸다. 나무에게는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가 이미 증명이고, 그 궤적 자체가 하나의 진실이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긴다. 인간은 왜 이토록 복잡할까.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려 끊임없이 애쓰고, 끝내 상처를 두려워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증명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포장까지 한다. 그러나 숲은 다르다. 나무는 사랑을 증명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내뿜는다. 향기를 내고, 그늘을 드리우고, 산소를 뿜어낸다. 그것은 설명도,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랑이다. 나무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 있음으로써 충분하다. 숲 속에서 숨을 고르다 보면 깨닫게 된다. 우리는 나무가 내어준 공기 속에서 안도하고, 나무의 그늘 속에서 쉼을 얻는다. 숲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인간을 품어준다. 그것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선물이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주고받음이 당연시되지만, 숲에서는 그저 내어줌이 당연하다. 나무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기여한다. 삶이란 어쩌면 숲처럼 단순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가 복잡하게 엮어놓은 관계, 끝없는 욕망, 증명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무가 하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고요하고 따듯할 것이다.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지 모른다.

숲길을 걷는 동안 나는 수없이 멈춰 선다. 풀잎 위의 이슬방울에 시선이 머물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때로는 바람에 실려 오는 낮선 꽃향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놀라울 만큼 섬세하다. 숲은 결코 거대함만으로 감동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사랑이란 무

엇일까. 인간은 사랑을 수없이 정의하려 하지만, 숲은 침묵 속에서 대답한다. 사랑이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흘러넘치는 것. 나무가 내뿜는 산소처럼, 숲이 내어주는 그늘처럼, 사랑은 말없이 흘러넘쳐야 한다.

오늘도 나는 숲길을 걷는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사유가 자라나고, 내 안의 무거움이 하나씩 풀린다. 바람은 내 머리카락을 흔들고, 빛은 내 어깨 위로 내려앉는다. 숲은 나에게 말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단순한 가르침이 마음 깊숙이 파고든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종종 지쳐 주저앉는다. 그러나 숲은 늘 제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속삭인다. 나무는 계절마다 잎을 잃고 다시 틔운다. 그 순환 속에 절망은 없다. 단지도 다른 시작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 사랑을 잃었더라도, 꿈이 꺾였더라도, 우리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울 수 있다. 숲은 그것을 가르쳐 준다.

해가 기울 무렵, 숲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듯 부드럽게 분다. 나는 그 속에서 알게 된다. 숲은 결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라는 것을. 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가르치고, 숲은 침묵하지만 노래한다.



구희진 <태양>

태양

태양이 다시 깨어난다.

긴 밤이 남겨 놓은 그림자를 하나둘 몰아내며, 천천히 하늘의 가장자리를 물들인다. 깊고 무거운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세상은, 이제 마치 새로운 숨을 들이쉬듯 조금씩 기지개를 켜다. 검은 구름은 아직 하늘을 떠돌지만, 그 사이로 붉고 따스한 빛줄기가 흘러나와 대지를 감싼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검처럼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히 스며드는 물결처럼 부드럽다. 세상은 그 부드러움에 젖어들며, 오래 기다려온 아침의 얼굴을 되찾는다. 비가 내린 흔적은 아직 땅과 나무 곳곳에 남아 있다. 흙냄새가 짙게 풍기고, 나무의 껍질은 젖은 채로 은은한 광택을 뽐낸다. 작은 풀잎 끝마다 맺힌 물방울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며 수많은 별처럼 흩어진다. 마치 밤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풀숲에 흩뿌려진 듯하다. 바람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 그 물방울들이 떨어져 투명한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는 곧 새로운 하루의 합창처럼 퍼져 나간다.

나무들은 태양의 품 안에서 조용히 춤춘다. 바람에 흔들리며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오랜 침묵을 깨는 인사의 속삭임 같다. 오랜 시간 어둠과 비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가지들은 이제 비로소 생기를 되찾는다. 작은 잎맥마다 따뜻한 피가 흐르듯, 빛은 나무의 몸속으로 흘러들고, 그 생명은 다시 번져간다. 나무의 그림자는 아직 젖어 있지만, 그 젖음조차도 햇살

에 닿으며 금빛으로 빛난다. 땅 역시 태양의 빛 앞에서 새롭게 깨어난다. 젖은 흙은 보얀 속살을 드러내며 빛을 머금고, 곳곳에 새싹이 솟아오른다. 밤새 숨죽이며 준비한 듯, 작은 씨앗들이 일제히 몸을 틀어 올린다. 그 작은 존재들의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합창을 이루고, 그것은 다시 하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다. 생명이란 늘 이렇게 고요한 순간 속에서 깨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태양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비춘다. 그러나 그 빛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빛나게 만드는 겸허한 조명이다. 돌멩이 하나, 풀잎 하나, 이름 없는 작은 꽃잎 하나까지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 무대의 한 장면처럼 살아난다. 세상은 그렇게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 태양은 단지 그 무대를 열어줄 뿐이다. 그 빛은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긴 밤 동안 나 또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드는 순간, 내 안에 얹히고설킨 어둠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태양은 말없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 눈부심에 눈을 가늘게 뜨면서도, 그 빛을 외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 주는 약속 같기 때문이다.

나는 그 빛과 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옮긴다. 아직 젖어 있는 길 위에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마치 땅이 나를 부드럽게 밀어 올려 주는 듯하다. 걸음마다 희망이 스며 있고, 그 희망은 다시 내 안에서 빛으로 자라난다. 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내 삶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이 나를 기다린다. 하루를 여는 태양처럼, 나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된다. 어제

의 무거운 그림자와 지난 시간의 아픔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비치는 빛이 있기에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삶이란 어쩌면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어둠과 빛의 순환 속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여정일 것이다. 어둠은 늘 다시 찾아오겠지만, 태양 또한 늘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내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된다.

태양이 뜨는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는다. 태양이 세상을 비추듯, 나 또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되고 싶다. 오늘의 태양은 어제와 다르다. 구름의 모양도, 빛의 각도도, 공기 속의 습도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 또한 어제와 다르다. 어제의 나로는 맞이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태양이 그렇게 매일 새롭게 세상을 열어 주듯, 나도 매일 새롭게 나 자신을 열어 가야 한다.

태양이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 역시 다시 깨어난다. 세상은 언제나 빛과 어둠을 품은 채 흘러가지만, 매번 찾아오는 아침은 나에게 잊지 못할 가르침을 준다. 어둠은 잠시 뿐이고, 빛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맞이하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 나는 오늘도 그 빛을 향해 걷는다. 발걸음마다 새 희망을 담고, 숨결마다 새로운 시작을 노래 하며, 하루의 문을 연다.

나무는 신 숲은 신전

“빨리 빨리.”

도시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계속 변하고 있다. 세상과 맞추기 위해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도시에서 계속 무언가를 탐하고 쥐고 놓지 못하는 나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진다. 탐욕의 무게만큼 몸이 무거워지고 어깨는 처진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도시에서 에어컨 바람에 취하고, 생각 없이 내뿜는 부정적인 말들이 살속에 파고 들어 온몸이 시리다. 이제 냉기가 도는 내 몸에 자연의 온기를 넣어줄 시간이 되었다.

아침 일찍 내가 만든 정성 가득 곰삭은 음식을 먹고 나니 차가운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온몸이 다시 따스해졌다. 기운이 솟아나고 마음이 단단해져, 나는 산으로 갈 힘을 얻었다. 발걸음마다 쌓인 피로와 근심을 털어내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나는 오늘도 숲으로 갔다. 산길에 들어서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갈한 산소가 폐와 마음을 가득 채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피톤치드 향이 나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여기선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 작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몸속 깊은 곳까지 시원한 에너지가 스며들었다. 살균력이 가득한 피톤치드가 내 몸속 세균들을 잠식해 버렸다. 피톤치드의 테르펜이 내뿜는 숲속의 향긋하고 시원한 향기가 온 몸에 퍼진다. 길 위에는 작은 돌

멩이와 낙엽이 함께 놓여 있었고, 나는 발끝으로 그것들을 살짝 건드리며 걸었다. ‘아,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길옆의 나무들은 무심한 척하지만, 나를 지켜보며 은근히 장난을 치는 듯 가지를 흔들었다. 나는 점프를 해서 나무 가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춤추며 내려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들이 내 어깨를 살짝 때리며 “힘내!” 하고 응원하는 것 같았다.

산정상에 오르니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마음속에 쌓였던 부질없는 상념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그 순간 돌멩이 하나가 굴러내려갔다. ‘어, 저기 내 걱정 하나가 산 아래로 굴러가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 “이제 놓아줘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산행은 몸의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운동이다. 몸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근력이 생긴다. 하산 길에 들른 약수터. 물을 마시는 순간,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잠시 웃음을 참지 못하고, “와, 세상 모든 걱정이 잠시 잠적한 느낌이야!”라고 외쳤다. 물방울이 내 손등을 스치며 장난치듯 튀자, 나도 모르게 “야, 나까지 놀라게 하지마!”라고 소리쳤다. 숲 속의 나와 물과 바람이 함께 웃는 순간이었다.

눈부신 태양이 따스하게 나를 감쌌다. 온몸에 붙어 있던 나쁜 기운이 녹아 내리며, 나는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 깊이, 내가 살아 있음을, 숨 쉬고 있음을, 웃고 있음을 느꼈다. 무거운 어깨에 상념들로 잔뜩 움츠렸던 나의 가슴이 활짝 펴지고 이제 나는 당당하게 산을 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발끝으로 작은 돌들을 톡톡 건드렸다. ‘하하,

마치 산이 나에게 도토리를 던지는 것 같네!’ 나무들은 마치 옛 친구처럼, 가지를 흔들며 나를 반겼다. 한 나무는 잎을 흔들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후후, 머리카락 정리 좀 해라!’라고 농담하는 듯 했고, 나는 웃으며 “알겠어, 알겠어!” 하고 답했다.

어느새 폭염에 지쳐 있던 나무들 사이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숲을 온통 차지하며 기세도 당당하게 돌아나 세상을 온통 지배할 것 같이 번성 하던 들풀 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것이다. 잘난척 하며 자신을 뽐내던 화려했던 꽃들도 시들어가 고 있다. 자신들의 날수를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은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고 마는 존재들일 뿐이다.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겨낼 나무들만이 묵묵히 숲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산길 끝자락에 다다르자, 부정적인 냉기가 가득했던 온몸이 온기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산속의 여신이 된 기분이었다. 자연 속에서 수양과 명상으로 마음을 닦고, 자신을 돌아본 덕분이다. 발걸음은 가볍게, 마음은 평온하게, 나는 마치 나는 듯한 느낌으로 산을 내려왔다. 나무는 신이고 숲은 신전이다. 모든 풍경과 소리와 바람이 나를 축복하는 듯했다. 길을 내려가며 문득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니!’ 작은 바위 위로 뛰어내리며 나는 외쳤다. “살랑살랑, 풍당풍당! 나도 세상과 장난치고 싶다!” 풀잎 사이로 굴러가는 햇살과 바람이 나와 함께 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한해서,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약수터에서 마신 물처럼, 세상 모든 기운이 몸속을 순환했다. 마음속 상념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는 웃음과 자유로 가득 찼다.

나무와 바람과 햇살과 내가 모두 하나가 된 느낌. 작은 돌멩이가 내 발 밑에서 반짝이고,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가 섞이며, 나는 다시 세상을 헤쳐 나갈 용기를 얻었다. 정성스러운 음식, 산의 맑은 공기, 햇살과 바람, 약수의 시원함, 그리고 나무와 돌까지. 모든 것이 나를 살게 하고 웃게 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숨 한 숨,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웃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나는 살아 있고, 오늘도 나는 자유다. 오늘도 나는 웃는다.’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며, 나는 다시 산을 내려왔다. 나무는 신, 숲은 신전, 바람과 햇살과 물, 모든 자연이 오늘도 나를 살려내고 축복해 준 것에 감사하며... 나는 웃음 속에서 삶을 느꼈고, 오늘의 나를 온전히 사랑했다. 세상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탱해줄 단단한 뿌리 한 줄기가 내 마음 속에 돌아왔다.

카르페 디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뜻밖의 보슬비가 내렸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나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호주 출신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론 뮤익의 전시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인체 조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고, 서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었다. 전시장 안은 숨결이 전해질 듯한 조각들로 가득했다. 피부를 타고 흐르는 푸른 핏줄과 혈관까지 정교하게 재현된 인체는 살아 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했다. 거대한 나무 지계를 짊어진 여인, 아내를 의인화한 암탉과 마주 앉은 남자, 서로의 시선이 어긋난 모자상,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 전시실에 놓인 해골 조각은 삶과 죽음, 인간 존재의 무게에 대해 묵묵히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전시장을 나와 안국역 빗길을 걷는 동안, 어린 시절 읽었던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 안젤리카』가 떠올랐다. 호주 작가 앤 아이삭스가 쓴 이 작품은 1995년 칼데콧 명예상을 수상한 책이다. 보통 아이보다 크게 태어난 안젤리카는 두 살에 부모의 오두막을 짓고, 열두 살에는 늪에 빠진 마차를 번쩍 들어 올린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 책 속 안젤리카처럼 ‘거대한 아이’였다. 2층 집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윈더우먼이 된 듯한 쾌감을 즐겼고, 부모님이 다칠까 노심초사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문 사진을 오려 붙이고 벽마다 색을 칠해 집안을 어지럽혔으며, 친구와 다투어 울면 집 전체를 깊은 우물처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학업의 무게, 취업과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가 접칠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다. 론 뮤익의 나무 지계를 진 여
인처럼, 책임의 짐이 어깨를 끝없이 눌렀다. 반대로 침대에 누
운 여인의 작품은 오직 나만의 공간을 꿈꾸는 현대인의 바람을
상징했고,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 입학식이
나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자주 가는 나이가 되었다. 해골이
놓인 전시실은 삶의 유한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우리는 결
국 유한한 존재이기에 오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작품은
말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전시장을 나온 나는 숲길로 향했다.
초록 내음이 은은히 스며들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칠 때마다 풀
잎은 더 짙은 향을 내뿜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
고, 부러지면서도 다시 뻗어 나간다. 그것이 나무의 삶이고, 숲
의 언어다. 한때 거대한 꿈을 꾸던 나는 이제 소박한 일상 속에
서 기다림과 절제를 배우며 단단해지고 있다. 나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나무들이었다. 세상 풍파 속에서도
나를 우뚝 서게 하는 것은 가족, 그리고 숲이다. 숲속 무대에서
나는 오늘도 호흡하고, 춤추듯 걸으며 삶을 이어간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고,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 있음에 최선을 다
하자.

차례

포레스트

태양

나무는 신 숲은 신전

카르페 디엠